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이종휘
편집주간 최재혁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 (051)253-7788 Fax. (051)255-7787
제작·인쇄 사인텔 Tel. (051)245-2337

총동창회 한마음가족대축제 · 경남고 베이스볼센터 개관

모교 자긍심 고취하고 야구명문 명성 이어가자



청백군으로 나뉜 동문들이 오자미게임을 즐기는 모습



롯데 박종찬(25회) 고문, 김대욱(29회) 고문 등 센터건립 고액기부자들, 총동창회 각 지구, 지역동창회장과 각 직능 및 동호단체장들이 참여하였다.

한마음가족대축제는 배대결(13회) 동문이 개회선언을 하였고,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종휘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모교에 베이스볼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을

총동창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 경남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제1회 한마음가족대축제 및 경남고 베이스볼센터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한마음가족대축제는 동문들간의 화합을 강화하고 총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된 행사이고, 베이스볼

센터는 모교야구부의 실력향상과 진학 등에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절실한 시설로 야구명문의 명성을 이어가고자하는 뜻있는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연하여 건립된 의미있는 시설이다.

김경진(44회) 아나운서와 제연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베이스볼센터 개관기념 테이프커

팅식으로 시작되었는데, 테이프커팅식에는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경남고 백영선 교장, 경남중 박순진 교장을 비



베이스볼센터 개관 커팅식

<기사 2면넘김>

총동창회 2023년 전반기 집행에 좋은 평가

제3차 집행위 부회장단회의

총동창회 집행위 부회장단은 6월 27일 저녁 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집행위 부회장단회의를 개최하



집행위 부회장단회의 모습

고상반기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 및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상반기 사업으로 용마골프대회(5월 15일 개최), 총동창회 한마음가족대축제(6월 17일 개최), 베이스볼센터 준공식(6월 17일), 명예동문 위촉의 건(54회 하병호, 6월 17일), 27회 김경진 동문 복권 및 27회, 29회 동문 복권의 총동창회 협력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 등에 대한 보고 및 평가가 있었고, 하반기 사업으로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경야회주관, 8월

24일~8월 27일 예정), 집행부 해외 동문회 탐방(11월 초순 예정), 기별야구대회(사무국 주관, 경야회, 덕형리그와 협의 진행, 10월 예정), 노브랜드배야구대회 경남고(OB)야구단 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 진행한 사업들이 연이어져 동문들에게 피로감을 유발하는 면이 있다는 의견도 다소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모교와 동창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성원해준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했다.

특히, 하반기의 노브랜드배야구대회 경남고(OB)야구단 출전과 관련하여 롯데

디자인즈감독 출신의 김용희(28회) 동문이 경남고(OB)야구단 명예 감독직을 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 시 김대욱(29회) 고문이 이후 필요한 모든 경비에 대한 부담을 약속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단들은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하반기 사업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는 8시를 넘어 종료하였고, 회관 1층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창회발전 방향에 대하여 환담을 이어갔다.

◇참석자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 사무총장(이상 32회) 정운성(35회) 양호진, 최재혁 편집주간(이상 36회) 김경곤 사무국장, 신동훈(이상 38회) 조태성(45회) 이재광(46회) 배준수(47회)

이종휘 총동창회장 대회사 전문

동문 간 뜨거운 인연 만끽하고, 대변화 새로운 출발점 될 수 있기를~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동기 및 후배와 동문 가족 여러분~

꽃들이 만발하고 녹음이 우거지는 멋진 유월에 자랑스런 우리들의 경남 고등학교 모교 교정에서 전 동문이 참여하는 경남중·고총동창회 한마음 가족대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대축제는 80년 전통의 우리 총동창회가 과거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진취자로서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변하고자 하는, 용기있는 동문들의 열망이 하나로 결집된 또 하나의 시작이란 점에서 오늘 대축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모교야구명문고의



대회사를 하고 있는 이종휘 총동창회장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모교야구부의 실력향상은 물론이고

자질있는 신입생모집과 졸업 후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로지 동문들의 힘으로 건립된 베이스볼센터의 개관식을 겸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 중인, 우리 동창회방송국인 KN1942 방송시스템을 통하여 전 세계 동문이 지금 이 순간을 실시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크게 자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중·고총동창회의 발전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마당에서 오늘 함께 어울려 동문들 간 뜨거운 인연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맘껏 즐기시고, 더 나아가 모교와 총동창회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오늘의대축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마장학회 제2차 이사회

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집중할 것

용마장학회는 6월 20일 저녁 6시 총동창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병찬(23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은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한 수렴절차를

통하여 결의되어야 함에도 이사들의 참석률이 계속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다며 참석률 저조는 장학회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니 참석률 제고에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하였다.

목동훈 상임이사에 의해 상반기 진행 사업 및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 야구부 지원 문제에 있어서 야구후원회의 발족으로 야구부에 대한 지

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장학회는 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부분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를 위해 장학회가 학교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학지원의 규모는 금리상승으로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서민석, 류명석 감사에 대한 재신임 건에 대하여는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사회가 마친 후에는 1층 코다리 식당으로 이동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학회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석자: 이병찬(23회) 이사장, 장혁표(9회) 이사, 목동훈(25회) 상임이사, 서민석(30회) 감사, 류명석(31회) 감사, 예동해(32회) 간사



용마장학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1면 기사받음>

설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한마음가족대축제까지 오늘의 행사 진행 상황들이 KN1942 방송시스템을 통하여 전 세계 동문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총동창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며 전 동문이 함께 즐기고 미래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백영선 교장은 축사에서 언제나 열정적인 동문들이 부럽다고 하면서 행사개최를 축하하였고, 김대욱 고문과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격려사와 축사를 하였다. 행사도중에 도착한 서병수(25회) 국회의원은 전 동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이종휘 총동창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행사에 참가한 모든 동문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랐다.

오전 행사로 컬링, 지압판 멀리뛰기, 다트게임 등 각부스별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동문과 가족들이 나이를 초월하여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게임결과를 떠나 주어지는 푸짐한 선물에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가 제공되었으며 1시부터 단체게임으로 줄다리기와 박터트리기가 진행되었는데 다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진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노래자랑에 즉흥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많은 팀이 상당한 연습을 하고 출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 도중 각 기수별로 많은 술이 제공되었음에도 특별한 문제나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56회 동기들이 가족들 포함 50명이 참석하여 가장 많은 참석인원을 기록하였고, 변문성(32회) 동문이 세쌍둥이 손주들을 데리고 참석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박종찬 고문이 각 기수별 텐트를 일일이 찾아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준 것이 동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은 대부분 이날의 행사가 동문들 간 화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도 행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마음가족대축제



총동창회장, 내빈 및 센터 건립 고액기부자들이 축포로 쏟아올린 오색테이프가 휘날리는 가운데 베이스볼센터 개관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



파티팅을 외치고 있는 이종휘 총동창회장, 서병수(25회) 국회의원,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



31회 동기들이 행사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고 베이스볼센터 건립기금

9회 조동훈 (100만원)	15회 이승준 (100만원)	20회 박병철 (1,000만원)	22회 유재진 (1,000만원)	25회 박종찬 (2,000만원)
26회 이영학 (430만원)	28회 백영호 (1,000만원)	29회 김대욱 (1,000만원)	32회 이종휘 (3,000만원)	32회 이성운 (100만원)
32회 예동해 (50만원)	33회 이영근 (30만원)	36회 양호진 (500만원)	36회 최재혁 (110만원)	37회 허부남 (2,000만원)
38회 조석태 (200만원)	38회 조용철 (100만원)	38회 한민득 (200만원)	40회 우영환 (1,000만원)	41회 최명준 (500만원)
41회 김인수 (200만원)	44회 탁정환 (100만원)	45회 구자삼 (50만원)	45회 김상수 (50만원)	45회 조태성 (50만원)
47회 정신 (1,000만원)	54회 하병호 (1억원)	55회 장지훈 (20만원)	17회 동기회 (100만원)	25회 동기회 (200만원)
33회 동기회 (50만원)	37회 동기회 (300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45회 동기회 (50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120만원)
양산지역동창회 (30만원)	강서지구동창회 (100만원)	남부산지구동창회 (250만원)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0만원)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60만원)
북부산지구동창회 (100만원)	사하지구동창회 (200만원)	중부산지구동창회 (100만원)	해운대지구동창회 (100만원)	덕영리그 (500만원)
경야회 (500만원)	용건회 (50만원)	경미회 (1,000만원)	K-청마회 (100만원)	덕경회 (500만원)
용마코스 (100만원)	용마골프회 (200만원)	야구후원회 (1,000만원)	KN1942야구단 (100만원)	

경남고-총동창회장 32회 이종휘 | 사무총장 32회 예동해 | 사무국장 38회 김경곤
준공일 2023.6.17

베이스볼센터 건립기금 현황

한마음가족대축제 후원 현황

현금 후원									
기수	이름	금액(만원)	기수	이름	금액(만원)	단체	금액(만원)	단체	금액(만원)
32	이종휘	500	40	김춘강	100	23회 동기회	50	38회 동기회	100
15	손부흥	20	40	박근성	20	24회 동기회	50	39회 동기회	100
26	박상호	100	42	정용중	50	25회 동기회	50	40회 동기회	100
29	김대욱	100	45	구자삼	50	26회 동기회	50	41회 동기회	100
30	이명건	50	45	김상수	50	27회 동기회	50	42회 동기회	100
32	김상권	100	47	정신	50	28회 동기회	50	43회 동기회	100
32	류현희	30	51	박보순	20	30회 동기회	50	44회 동기회	100
32	안원철	200	51	정유석	50	31회 동기회	100	45회 동기회	100
33	최웅남	100	52	김민철	50	32회 동기회	100	46회 동기회	100
36	김정현	50	53	박성영	20	33회 동기회	100	47회 동기회	100
37	허부남	100		남부산지구	50	34회 동기회	100	51회 동기회	50
38	구동주	30		사하지구	50	35회 동기회	100	52회 동기회	50
38	조석태	50		재경지역	50	36회 동기회	100	55회 동기회	50
38	한민득	50		창원지역	50	37회 동기회	100	56회 동기회	50
45	오문찬	50	합계					4,390	

물품 후원					
기수	이름	내용	기수	이름	내용
23	김영기	티마스터 2대, 착즙기 2대(120만원 상당)	38	한민득	캔맥주 10박스
24	노상우	부산시티호텔 숙박권 5장	40	한수열	삼성기프트카드 10만원 3장
24	박극제	고등어 선물세트 10박스	44	김성준	캔음료 400개
25	박종찬	냉장고 3대, 드럼세탁기 3대, 통돌이세탁기 3대	54	이동준	인절미 막걸리 8박스
31	김태근	제주도 이이도펜션 1박 2일 숙박권(120만원 상당)	55	한재호	소주 10박스, 생수 30박스
34	이진호	백화점상품권 10만원 5장			



한마음, 한가족,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겁다



동문들이 청백군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부스에서 담소를 즐기는 동문들



드럼세탁기 착즙기 경품권을 차지한 동문가족



동문 가족이 게임을 하고 있다.



장재환(56회) 동문 자녀들의 노래자랑



노래자랑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변문성(32회) 동문 세쌍둥이 손자와 함께 참석

제47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



모교 덕형관 앞에서 단체 사진



부평동 '일신명품한우'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47회 동기회는 6월 24일 모교 및 총동창회관에서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후 2시 모교를 방문하여 덕형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고, 동창회관으로 이동 4시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홈커밍데이 추진위원장인 정민호 동기의 개회사에 이어 30년에 걸친 동기들의 활동에 대한 추억의 영상시간이 있었다. 기별야구대회에서 7번 우승한 기록이 47회 동기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정신 동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창회관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면서 47회가 동창회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한 첫 동기가 되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더 나아가 홈커밍데이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말고 동기들 간의 화합은 물론이고 각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계기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내실을 기한 행사진행을 격려하고 47회가 총동창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앞날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47회 동기 50명이 각 10만원씩 부담하여 모은 모교사랑기금 500만원 전달식이 있었고, 총동창회에서 47회 동기에 대한 격려금 전달식이 있었다.

오후 5시 부평동 '일신명품한우' 식당으로 옮겨 연찬회를 이어갔으며, 저녁 8시에 인근 '왔다가소' 주점으로 이동하여 동기들 간 어울림마당 자리를 가졌다.



47회 동기기 30주년 홈커밍데이 추진위원회 위원들 인사



47회 동기기 집행부가 이종휘 총동창회장에게 모교사랑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총동창회 차세대주자들 격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7월 11일 오후 6시 조중완(54회) 동문이

운영하는 사상야끼짬 식당에서 취임공약에 밝힌 후배기수들의 동기회 창립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종휘 회장은 동기회 창립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57회 안재영 동기회장에게 동기회



총동창회 집행부에서 57회 이후 후배기수 대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창립을 축하하면서 58회 이후 기수들도 빠르게 동기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박종찬(25회) 고문은 후배기수들의 관심과 참여없이 총동창회가 영속될 수 없다며 후배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후배기수들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K-청마회의 노력과 활약을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예동해(32회) 사무총장, 김경근(38회) 사무국장, 정유석(51회) K-청마회 회장, 김문건(53

회), 조중완(54회), 이동주, 황시우(이상 55회)도 동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하였으며 후배기수로 동기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58회 김동욱, 59회 김성수, 62회 한민, 67회 전영재 동문이 참석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후배기수들은 총동창회와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는데 대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며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배들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임은 저녁 9시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제57회 동기회 창립총회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가 되겠습니다.



57회 동기회가 총동창회관에서 창립총회를 한 후 참석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7회 동기회는 7월 4일 오후 6시 30분 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동기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졸업생 450여 명 중 창립총회에 참석한 동기가 9명에 불과하였지만, 57회 동기회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내빈이 30명에 이르러 총회분위기는 풍성하였다.

행사는 국민의례, 총동창회장에 의한 동기회기 수여, 격려금 전달, 회장 인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안재영 동기회 초대 회장은 10개월 동안 K-청마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총동창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동창회에 관계하고 있는 선배들이 동문관계가 아니면 사회에서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분들이라는 사실, 57회가 그저 어린 후배가 아니라 동창회의 미래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며, 57회 동기들 역시 경

남중고동문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동기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격려사에 나선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동기회 초대 회장의 자리는 큰 책임감이 주어지는 자리라면서 안재영 회장의 봉사 정신, 열정을 치하하였고, 57회 동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장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미래를 보는 동문회가 살아남는다면서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 과거 오늘날의 총동창회라면서 기수 차이를 떠나 선 후배간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창회가 되어 있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해 56회에 이어 총동창회관에서 창립총회를 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고, 56회 동기회가 6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많은 동기들이 모이고 있는 점을 들어 57회 동기회도 비록 적은 수로 출발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막강한 동기회로 성장할 수 있다며 청마회와 경마회의 도움을 받도록 조언하였다. 동창회보 구독이 필요한 점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전원이 8시쯤 오민일(56회) 동문이 운영하는 부평동 '삼세관'으로 이동하여 늦은 시간까지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내빈 -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예동해(32회) 사무총장, 최재혁(36회) 편집주간, 김경곤(38) 사무국장, 최영준(41회), 정민호 배준수(이상

47회) 정유석(51회) 김지운 정상중(이상 52회) 김문건(53회) 고지현 조종완(이상 54회) 이육한 황시우(이상 55회) 강지훈 김선철 김정훈 오신욱 이승민 이준희 임동섭 장재환 천두만

(이상 56회) 김동욱(58회) 김성수 이희동(이상 59회)

△57회 - 안재영(회장) 곽민준(사무국장) 김동우 김재겸 김주민 안상배 장병학 조상원 황경현

57회 초대 동기회장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경남중·고등학교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 여러분.

제 57회 동기회장을 맡게 된 안재영입니다.

곳은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57회 창립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동기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분들께 이 자리의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도 꽤 의미있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고 3때 부반장 해본게 전부인 제가 작년 가을 K-청마회에 들어오고 부터 동기회장을 맡게 되기까지 지난 10개월동안 제가 한 일은 관찰이었습니다.

딱히 동기들도 없었고, 이게 뭐가 싶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보기만 하던 야구라는 걸 처음 플레이 해봤고, 동문들이 하는 식당들을 하나둘 알게 되고 맛보았습니다. 용마의 밤 행사에

서 동창회의 거대한 규모를 보았고, 한마음가족대축제에서 화합을 보았습니다.

우리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구나. 그게 제가 몇 년도 아닌 고작 10개월간 관찰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대선배님들께 우리는 그저 어린 후배가 아니고 동창회의 미래로 여겨지고 있구나. 경마회, K-청마회를 통해 많이 느꼈습니다. 그저 적당한 회장감을 찾아 동기회를 맡기고 한 발 빠져있을 생각이 컸던 제가 동기회장까지 맡아 보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남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그저 선·후배의 관계로 확 편하게 느껴지지만, 여기 계신 모든분들, 사회에서 제가 쉽게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 단 한명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의 명분으로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주는 아낌을 받는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저희 57회 동기회 역시 서로와 주변을 아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휘 총동창회장이 57회 안재영 초대회장에게 동기회기를 수여하고 있다.

기부자 리스트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현황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29	김대욱	5억3500만원				3100만원

루비		3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25	박종찬	2억6140만원				4100만원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6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완수	1억원				
2	23	김영기	1억2300만원				
3	25	김진철	1억1500만원				
4	30	최우철	1억1200만원				
5	33	박명진	1억400만원				
6	54	하병호					1억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5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경재	5100만원				
2	16	송규정	5700만원				100만원
3	17	최만식	5000만원				
4	18	김길제	5200만원				
5	19	이부성	5000만원				
6	22	유재진	6625만원				1000만원
7	24	박홍규	5000만원				
8	24	전용우	5000만원				
9	26	박상호	6750만원				100만원
10	30	김현태	5470만원				
11	30	윤성덕	6450만원				
12	32	이종휘	2310만원				6000만원
13	37	허부남	5750만원				4140만원
14	38	권두성	7350만원				
15	40	우영환	4100만원				10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0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100만원
2	15	김경일	4000만원				
3	16	엄종원	3000만원				
4	19	이용흥	4150만원				
5	20	박용덕	332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중광	3100만원				
8	25	서병수	3000만원				
9	27	박치호	4000만원				
10	28	백영호	3350만원				1000만원
11	29	박성철	3500만원				
12	31	박종호	3550만원				100만원
13	31	홍성수	3370만원				
14	33	김법영	4430만원				
15	35	장인화	3400만원				100만원
16	36	박진용	3250만원				
17	38	정재형	3140만원				
18	39	박근태	3270만원				
19	44	탁정환	3530만원				240만원
20	47	정신	3690만원				105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3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두호	1000만원				
2	8	박동렬	1000만원				
3	10	조양제	1000만원				
4	12	남기용	1000만원				
5	12	이재원	1000만원				
6	15	손부홍	1630만원				20만원
7	15	천신일	2430만원				
8	15	한해수	1000만원				
9	17	이세복	1000만원				
10	17	최성호	1000만원				
11	19	황태원	1000만원				
12	20	김형오	10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3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3	20	박병철	500만원				1000만원
14	20	허규판	1000만원				
15	21	강창수	1730만원				
16	21	전재호	1000만원				
17	22	김학균	1000만원				
18	22	박재상	2000만원				
19	22	장성덕	1000만원				
20	22	장성복	1000만원				
21	22	허범도	1000만원				
22	25	김익수	950만원				50만원
23	28	노영현	1500만원				
24	30	정경목	1000만원				
25	33	이순환	1000만원				
26	33	최웅남	2260만원				400만원
27	34	박철웅	1070만원				
28	34	이진호	2130만원				
29	41	이양걸	1000만원				
30	41	최영준	540만원				500만원
31	55	전민기	800만원				2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7	김삼현	500만원				
2	8	김봉길	500만원				
3	17	김동수	500만원				
4	17	윤성욱	500만원				
5	17	조종언	500만원				
6	19	김봉호	600만원				
7	19	장홍의	600만원				
8	20	김태영	500만원				
9	23	이병찬	550만원				
10	23	이상수	770만원				
11	25	박세철	630만원				
12	25	손기천	550만원				
13	25	송정규	58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4	25	이명철	710만원				
15	26	김상현	500만원				
16	26	박재욱	500만원				
17	26	박호대	500만원				
18	26	하원규	500만원				
19	27	김태우	550만원				
20	27	문두찬	630만원				
21	28	구영소	500만원				
22	28	이원철	950만원				
23	28	임익성					500만원
24	28	최강호	500만원				
25	29	이석조	600만원				
26	30	김해곤	700만원				
27	30	윤인태	630만원				
28	30	이명건	530만원				50만원
29	30	이학수	700만원				
30	30	허정택(미)	615만원				
31	31	남기태	710만원				
32	31	류명석	780만원				
33	31	오민일	650만원				
34	31	이병태	650만원				
35	31	정철수	510만원				
36	34	이재완	550만원				
37	36	양호진	20만원				500만원
38	39	백기현	890만원				
39	41	김정태	510만원				
40	44	안병규	780만원				100만원
41	45	김상수	360만원				150만원
42	45	조태성	500만원				40만원
43	64	표종빈	500만원				

<2023년 7월 27일 기준>



모교 및 총동창회 사랑기금 기부자 참여 현황

(단위: 만원)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5회	5	상기중	250	28회	6	백영호	1,100	38회	1
		김영한				엄재홍	100		
		김병무				이원철	50		
		진도영				임익성	500		
		임성업				임재덕	50		
6회	1	오영은	100			한명재	100	39회	4
7회	1	김삼현	500			김대욱	47,000		
9회	1	조동훈	100			김영찬	100		
12회	3	배중섭	30			김종명	100		
		이재원	1,000			이문열	200		
		조한기	3			이선호	100		
13회	1	김성훈	10			차의수	100		
		손부홍	100			현응열	100		
15회	3	윤상준	100	30회	1	김현태	2,000	42회	1
		이승준	100	31회	1	김종규	31		
17회	2	이수창	200			예동해	50	43회	2
		장호남	100	32회	3	이성훈	100		
18회	1	하영일	30			이종휘	6,000		
20회	1	박병철	1,000			김기산	30		
21회	1	강수경	16			김윤성	50		
22회	1	유재진	1,000			백수현	50		
23회	1	김성태	100			이동근	100		
		곽두희	100			이형근	70		
24회	4	노상우	50			최웅남	1,100	45회	5
		임민호	50	34회	2	이진호	800		
		전용우	5,000			박철웅	550		
		곽동원	50	35회	3	류인수	30		
		김옥철	30			박동열	30		
25회	8	김중현	100			백현성	35		
		김진철	5,000			양호진	500		
		박종찬	14,000			정윤희	30		
		오양득	30			최재혁	160		
		옥동훈	20			이수환	30		
		정철수							

연회비납부 98%달성! 내친김에 대마도 단체여행 간다



참석자들이 1차 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산지구동창회는 7월 17일 용호동 소재 더블유 상가 “진상”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남부산지구동창회의 한수열(40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회비 납부자 60명 목표에 1명이 부족한 59명

이 납부를 하였다며 그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 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협조해준 남부산지구 동문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지구동창회에서 처음 시도

하는 일본 대마도 단체여행 건에 대해서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남부산지구 최고참이신 이종철(16회) 동문은 격려사를 통해 남부산지구동창회의 역사에 대하여 회

고하면서 남부산지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제의를 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살면서 고국을 일시 방문한 오양득(25회) 동문이 한수열 회장과의 오랜 인연으로 특별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함께 참석한 25회 김종현, 김동진 동문은 남부산지구를 위해 금일봉 찬조도 하였다.

모임 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맥주와 하이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호프집 비용은 남부산지구 자문위원인 김정헌(36회) 동문이 전액 찬조해주었다.

◇참석자 : 이종철(16회) 김동진 김종현 오양득(이상 25회) 김용석(28회) 김정헌 정병기(이상 36회) 박용한 이상학 정우영(이상 39회) 김대영 김용철 박기엽 배병훈 한수열(이상 40회) 김남표 정용중(이상 42회) 조정래 최상배(이상 45회) 신정일(46회) 감기환(47회) 김석훈 서석진(이상 50회) 박보순 오성진 정유석(이상 51회) 장지훈(55회)

북부산지구 7월 정기모임



참석자들이 모임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북부산지구동창회는 7월 27일 화명동 ‘김형제 고기의 철학’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북부산지구동창회의 박동열(35회) 회장은 지난 취임사에서 밝힌 공약사항을 언급하며 회원 수 확충과 북부산지구동창회만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 중

에 있음을 보고하고, 사람 냄새나는 지역동창회를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내빈이자 북부산지구회원자격으로 참석한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경남고 베이

스볼센터 개관식과 한마음가족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내용, KN1942 방송국 개설 및 활동 사항 등 총동창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순조로이 잘 집행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다만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납부 실적을 올리

기 위한 총동창회의 노력과 별개로 북부산지구 회원들이 나서서 납부 실적이 오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날 참석한 최고참 이승준(15회)동문은 살아온 지난 세월 들을 회고하며 특히 젊은 후배들에게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이라며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기를 여러 차례 당부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옥숙한(33회)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소회를 밝혔고, 북부산지구 동문이 아니지만 강부덕(20회) 동문이 이종휘 회장과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은 저녁 7시쯤에 시작하여 10시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으며, 2차로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옮겨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차 모임의 비용은 강문실(34회) 동문이 전액 부담하였다.

◇참석자 : 이승준(15회) 강부덕(20회) 이종휘(32회) 김 철 옥숙한(이상 33회) 강문실(34회) 박동열(35회) 양태형(37회) 박태봉(38회) 최현덕(44회) 문용성(46회) 오세빈(54회) 서명기(58회)

남부럽지 않는, 단단한 결속을 다지는 창원지역동창회



창원지역동창회는 5월 14일 동문, 가족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버스로 이동, 순천국가정원박람회장에서 예쁜 꽃들의 향기와 각국의 정원을 돌아보았고 순천만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순천만의 생태와 갈대밭과 갯벌의

풍광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6월 10일에는 여수시티파크CC에서 1박 2일 동안 동문과 가족 24명이 참석한 제2회 창원지역 동창회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수창(17회)부부, 박상식, 성낙출,



심영섭, 함진복(이상 19회), 김동언, 김정욱, 한원우(이상 26회), 김정암(29회)부부, 김해곤, 조명제(이상 30회)부부, 안정모(32회), 이동혁, 조시형(이상 34회), 하성포(39회)부부, 박일수(42회), 박대원, 박성완, 조성욱(이상 45회)등 24명이 참석하여 6개

조로 나누어 기량을 겨루었다. 이수창(17회) 동문이 신페리오 우승을 기록하였고, 박대원(45회) 동문이 롱기스트상을, 김동언(26회) 동문이 니어리스트상을, 하성포(39회) 동문부부가 부부원양상을 수상하였다.

통영지역동창회 6월 월례회

통영지역동창회(회장 신성찬 25회)는 6월 14일 충무짬식당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를 가졌다.

그동안 업무로 참석이 어려웠던 송대양(37회·동원로얄컨트리클럽 & 리조트 수석지배인) 동문의 전입인사가

있었다. 지난 3월에 철수를 맞은 동문에게 축의금전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갑을 맞은 주승진(36회·부경양식상사대표)동문에게 신성찬 회장이 축하의 말과 축의금을 전달하였다. 6월 17일 모교 운동장에서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한마음가족대축제 행사에 대한 홍보와 참석에 대한 알림이 있었고, 회원들의 동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이팅을 담은 덕담을 이어갔다.

◇참석자:(사진 왼쪽부터) 신종목(40회) 배성만 김기산(이상 33회) 주승진(36회) 신성찬(25회) 송대양(37회) 임경우(53회)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 6월 모임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는 6월 14일 8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배내골 참민물장어에서 6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김상갑 김현범(이상 34회)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진조석(39회) 유종아(40회) 정찬홍(43회) 김상조(52회)



북경동문회 단합대회

재북경(北京)경남중·고동문회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다음 모임은 8월 10일이다.

◇참석자:(사진 왼쪽부터) 이대환(44회) 곽상현(37회) 신봉경(39회) 이철정(43회)



대전·세종동문회 7월 임원모임

대전·세종동문회는 7월 21일 유성구 '남해생아구'에서 임원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특별히 부산에서 38회 조석태동기회장과 구동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천안에서

45회 조성수 동문도 참석하였다. 조성수 동문은 천안에 대형 영양병원인 '프라미스 영양병원'을 오픈하여 인사차 방문이었다. 1차 식대는 김성수(21회) 동문이 전액 계산하였고, 2차 커피숍 비용은 대전·세종동문회 회장인 임형택(32회) 동문이 계산하였다.

◇참석자: 김성수(21회) 임형택(32회) 박대원(33회) 조석태 구동주 김현민 이동욱(이상 38회) 박종국(39회) 임병호(41회) 조성수(45회) 박경호(49회)



재애틀랜타 동문회 6월 정기모임

재애틀랜타 동문회 6월 24일 둘루스 소재 청담 한식당에 모여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다. 재애틀랜타 동문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참석자: 박동철(21회) 김우갑(26회) 안근식(29회) 정상희(31회) 권건오 정종우(이상 32회) 김용민(33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KN1942야구단 브라더배 골드리그 선두 질주



7월 2일 Rooster팀과의 경기에 앞서 심판이 각 팀에게 페어플레이를 당부하고 있다.

동문 선발 야구팀인 KN1942야구단은 7월 2일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던 Rooster팀과의 경기에서 15대 7로 대승하였다.

부상 중이었던 황정후(41회) 감독이 기브스를 풀고 복귀하여서 팀을

진두지휘 해주었다. 젊은 선수출신 후배기수들이 개인사정으로 출전하지 못하여 승리가 우려되었으나 투수 데뷔전을 치른 김동현(50회) 동문이 선발로 팀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었고, 팀 에이스인 이정민(52

회) 동문이 3이닝을 1실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승리를 견인할 수 있었다.

팀 수비에 핵심인 박정진(53회) 동문이 경기초반 위기 때 세 번의 호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 경기 MVP

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고, 손인호(48회) 동문의 우월 120M 초대형 마수걸이 홈런으로 팀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여기에 팀 하위타선을 담당하고 있는 서상대(41회) 동문과 장수권(57회) 동문, 장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이봉희(53회) 동문의 맹활약으로 팀이 신승을 할 수가 있었다.

팀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신(47회) 경야회 회장이 부산야구협회장으로서 고교주말리그로 바쁜 와중에 경기에 참석해 준 열정도 팀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날 경기결과로 KN1942야구단은 5전 4승 1무로 승전 13점을 얻어 브라더배 골드리그 1부 리그 단독 1위에 등극하게 되었다.

제1회 덕형리그·청조리그 친선 교류전



친선 경기 후 참가자들이 운동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고 동문 야구리그인 '덕형리그'와 부산고 동문 야구리그인 '청조리그'가 7월 23일 부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회 친선 교류전을 가졌다.

1회에서 4회까지 각 리그 OB선수(44회 이상)들로 경기를 하였는데 임태영(40회) 선발투수와 석상봉(44회) 투수의 호투에 힘입어 6대 5로 이겼다.

그런데 YB선수들의 경기로 이어진 5회부터 덕형리그 선수들이 평소 답지않은 긴장한 모습 속에 안타까운 실수들이 연이어져 최종 스코어 9대 12로 덕형리그가 패했다.

경기 외에서 두 학교 졸업생들은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같은 학교 선배들이 어울리듯 스스럼없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구소식들도 물어볼 수 있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부산고 주차장이 문을 닫는 저녁 10시가 되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겨우 자리를 마칠 수 있었다.

가을에 경남고 운동장에서 2차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덕형리그에는 현응열(29회) 고문이 직접 참여하여 응원에 격려금까지 전달하였다.

◇참석자 : 현응열(29회) 박상국(33회) 양호진(36회) 김경곤 김태성(이상 38회) 김근영 김동근 김병주 노인철 박기엽 신영석 이승배 임태영 정원철 지창근(이상 40회) 강훈 김신욱 류지섭 서상대(이상 41회) 석상봉(44회) 손창오(45회) 김정현(50회) 김동언 박보순 신현식(이상 51회) 박영진 이정민 한중현(이상 52회) 박정진 하병오(이상 53회) 전명진(54회) 서부건 황시우(이상 55회)

덕형리그 야구부 장학금 전달

덕형리그 양호진(36회) 회장은 7월 13일 경남고를 방문하여 야구부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덕형리그는 매년 야구부 2명에게 각 240만원 총 4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지원 대상 야구부는 3학년 강병욱 선수와 김우혁 선수다.

양호진 회장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학금 전달식에 동석한 전광열(44회) 감독도 격려하였다.

◇참석자 : 백영선 교장, 양호진(36회) 덕형리그 회장,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강훈(41회) 덕형리그 사무국장, 전광열(44회) 야구부 감독



덕형리그 야구부 장학금 전달식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 연락처 : 동창회 사무국
Tel. (051)253-7788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 성원해 주세요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기장 드림볼파크장에서 개최 예정

모교 야구명문의 대를 이어갈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개최되는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야구대회가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4일간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총동창회와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경남중·고야구동문 및 현역 프로선수, 경남

중·고야구후원회의 후원을 받아 주최하고, 모교 경야회와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본 대회는 올해로 3회째며, 1, 2회 때 경남중·고야구동문 및 현역 프로선수들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참가팀은 수영구, 영도구, 서

구, 양산시, 해운대구, 사상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부산진구, 강서구, 동래구, 연제구의 13개 리틀야구팀이다.

경기에 참가하는 야구팀의 대표자들은 7월 24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실에 모여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대진표 추첨을 완료하였다.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격려금 전달

총동창회는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의 선전을 기원하며 7월 28일 경남고 교장실에서 전광열(44회) 감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본인의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좋은 성적을 이루기를 당부하였고, 또한,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희망하였다.

대회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경남고의 첫 게임은 마산고 & 배재고의 8월 1일자 경기 승리팀과 8월 3일 오후 2시 신월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경남고경기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참석자 : 백영선 교장,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 총동창회 사무총장(이상 32회),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전광열(44회) 야구부 감독



지난 7월 28일 경남고 교장실에서 전광열(44회) 감독에게 격려금을 전달식을 가졌다.

2023 오각스포츠배 부산초등학교 야구대회



대회에 참석한 선수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 오각스포츠배 부산초등학교 야구대회’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리틀야구장)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오각스포츠 허근영 대표(52회 동기회 부회장)가 대회장으로 주최하는 부산 초등학교 야구대

회로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경야회, 그리고 경남고 52회 동기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올해 2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양정초등학교가 우승을, 수영초등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캠페인



경남고 학생회는 6월 9일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등교하는 선후배들에게 학생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허그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공유를 통해 생명에 대한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학생들의 생명 존중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수업량 유연화 자율교육과정 운영

경남고는 기말고사를 끝낸 마지막 주(7월 3일~7월 10일)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주간이었다. 이 주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기열전'을 심독 후 그룹 토론 및 전자책 글쓰기를 해 보거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디베이트 토론 및 교과 융합심화

탐구 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였다. 자신의 흥미와 기호에 따라 선택한 수업을 듣는 학습 시간이었기에 학습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개인적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학습 시간이었다.



명사초청 직업 특강

경남고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직업 관련 지식을 고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명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직업 특강 프로그램'을 7월 6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고 동문 선배와 서부 진로교육 지원센터의 강사들이 초청되어 최근

의 직업 동향을 들려주었고, 특히 방송·엔터테인먼트, 드론, 기업 경영, 유튜브, 경찰관 및 간호사, VR 전문가, 성우, 요리사, 약사, 물리치료사,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 목표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학업 동기와 포부를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일본문화현장체험활동

경남고 학생들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외문화 탐방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경남고 15회 졸업생이신 천신일 '우리 옛 돌 박물관' 이사장(세종그룹 회장)의 지원으로 1,2학년 재학생 20명이 일본 문화 예술 체험학습을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이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감수성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문화와 사회 비교를 통해 타인과 다름에 대한 가치와 관습, 생활과 행동양식 등에 대한 다양성

과 포용성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였다. 특히 새로움과 상호 교류에 대한 도전은 자기 성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국제적인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체험활동이었다. 이러한 해외 체험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천신일 회장은 해마다 20~30명의 후배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많은 동문들이 이러한 취지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경남중 해양스포츠체험교육

경남중 1학년 학생들이 7월 11일 해양스포츠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 체력 증진과 자기 생명보호능력 함양을 위해 지리적으로 우수한 해양스포츠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카약,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안전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체험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상안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고 나아가 해양스포



츠를 활용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중 직업교육박람회 참여

7월 14일 벅스코에서 열린 직업교육 박람회에 경남중 전교생이 참여하여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로 체험에 임하였다. 부산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 소개 부스앞에 긴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자신의 원하는 체험을 한 뒤 선물까지 받고 활짝 웃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미래 건강한 직업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



한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더위도 잊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체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부탁을 남겼다.



시가 있는 교정 <2>

국산기념관

맨 처음 싹을 틔웠지
 땅은 척박하고
 비바람 휘몰아쳐도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렸지

뿌리가 깊어야
 든든한 재목이 되거든
 그래, 선배는 뿌리야
 후배는 즐기고 가지고 옹이고
 지금 재학생은 갓 핀 새순이야

가장 깊은 뿌리 하나
 국산기념관으로 세워져
 후배들의 터전 되고 거름 되네

기념관 돌벽마다 새겨진
 선배의 사랑과 헌신
 초여름 햇살에 눈이 부신데

나무들은 모여서 숲을 이루고
 뿌리는 깊게
 즐기는 굳게
 가지와 잎은 무성하게
 초록의 위용을 아낌없이 뽐어내고 있구나

동창회장은 동창회의 대표이고 얼굴이다. 동창회를 가장 사랑하고, 동창회를 위하여 가장 헌신하는 분이다. 모교 80년 역사에서 많은 분이 동창회장을 역임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회장을 맡은 분은 고 김택수 1회 선배님이다. 선배님은 1962년

부터 1983년까지 21년간 7~17대 동창회장으로 활동했다.

국산 기념관은 선배님의 유지에 따라 유가족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건축하고 모교에 기증하였다. 기념관은 1986년 4월 준공되었다. 1층은 394석의 객석을 갖춘 강당이고,

2층은 영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관은 학생들의 시청각실과 음악실로 사용되고, 학예전과 음악회 등 대외행사를 치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국산(菊山)이란 이름은 선배님의 아호를 따서 지어졌다. (이상 '경남 중고등학교 80년사'의 내용을 요약)

지난 6월 17일, '총동창회 한마음 가족대축제'에 참석한 날에 시간을 내어 국산기념관에 올랐다. 기념관 돌벽마다 선배님의 사랑과 헌신은 가득한데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모교에 선배님이 계시고, 선배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교정은 푸르고 울창한 나무들

로 둘러싸여 있구나 하는 고맙고도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문득 나무는 선배와 후배가 이어지는 전통의 표상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한 그루 나무라면, 선배는 뿌리다. 선배가 심은 뿌리의 바탕 위에서 후배는 즐기며 굳게 세우며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피운다. 나무들은 모여서 짙은 숲을 이룬다. 숲 속의 나무는 초여름 눈부신 햇살 아래 초록의 위용을 뽐어내고 있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어울리는 눈부신 향연이다.

김철원(36회)
 동창회보 편집위원



불황극복 창업프로젝트

왕자맥주

www.왕자맥주.kr
T_070.7723.9292

38회 한민특 | 45회 오문찬

<p>개금점 051.898.9090 부산진구 엄광로16(개금동) 개금현대아이파크상가 1층 101호</p> <p>주례점 051.558.1253 사상구 백양대로 497</p> <p>동래점 051.505.7466 동래구 온천3동 1458-10</p> <p>구서점 051.516.9033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 55 (구서지하철1,3번 출구)</p> <p>남천점 051.711.0775 수영구 수영로 392</p> <p>신개금점 051.715.2626 부산진구 백양대로313</p>	<p>초읍점 051.914.9292 부산진구 새싹로 256 오티시아점ot</p> <p>당리점 051.913.3888 사하구 당리동 317-1</p> <p>장림점 051.266.4140 사하구 다대로242</p> <p>온천장점 051.558.3789 동래구 온천장로119번길 25</p> <p>김해어방점 경남 김해시 인제로166</p>
--	---

경미회 족구대회, 모교 발전을 위해 하이킥!

졸업 40회대 기수를 위주로 결성된 경남중·고등학교 미래발전협의회(약칭 '경미회')는 6월 10일 오전 9시 금정산성 물레방아집에서 유월의 푸른 녹음과 맑은 날씨를 배경으로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해 온 대회로 올해가 벌써 5회째다.

올해는 특히 졸업 50회대 기수들로 구성된 'K-청마회'팀을 초청하여 선후배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김대영(43회) 경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미회가 총동창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간의 단합이 중요하며 대회를 통하여 회원들 상호 간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자고 역설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경미회와 K-청마회 회원들이 총동창회사업에 여러모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그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경미회와 K-청마회가 총동창회의 주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미회 5개 분과에서 각 2개팀, K-청마회에서 2개팀, 총동



대회 사전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회에서 2개팀이 출전 함께 14개팀이 토너먼트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미래발전분과팀이 우승을 차지하여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대외협력분과팀이 준우승으로 30만원의 상금을, K-청마회가 3위로 상금 20만원을 받았다. 그 외 사회공헌분과팀이 최다참가상으로 상금 10만원을, 친목교류분과팀이 응원상으로 상금 10만원을, 문화체육분과팀이 감투상으로 상금 10만원을 각 수상하였고, 개인상으로 미래발전분과의 김현진(52회) 동문이 MVP로, 대외협력분과의 임길환(54회) 동문이 미기상으로 각 롯데상품권(10만원)을 차지하였다.

치열한(?) 경기를 치렀음에도 단 한 사람의 부상자없이 오후 3시 30분 경

기를 마칠 수 있었고, 5시 30분까지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시상식 중간중간에 경미회 회장을 역임한 고문들과 내빈들의 건배사가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로는 각 분과별로 별도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박상현(37회), 김경근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태호(이상 38회) 해운대지구 회장, 김종엽(39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김현오(42회) 용마골프회 사무국장, 김경진(44회) KN1942방송국 제작국장 외 경미회 K-청마회 회원 80명

◇개인 찬조 : 박종찬(25회) 경미회 명예회장 타올 120장 + 50만원, 우영환 100만원, 임태영 20만원, 한수열(이상 40회) 30만원, 이양걸 명품지갑

(몽블랑, 페라가모)2개, 최영준(이상 41회) 50만원, 박동식 30만원, 문지성 20만원, 신봉준 30만원, 정용중(이상 42회) 이가한우 식사권 10만원 3장, 김대영 100만원, 이진배(이상 43회) 30만원, 안병규(44회) 50만원, 구자삼 메로킹블랙타이거세트 5박스, 김상수(이상 45회) 100만원, 이재광(46회) 30만원, 정신(47회) 50만원, 정유석(51회) 30만원

◇단체 찬조 : 허부남(37회) 사하지구 회장 50만원, 한민득(38회) 용마골프회 회장 소주, 맥주 각각 5box + 30만원, 남부산지구 20만원, 동래금정지구 20만원, 해운대지구 20만원, 경야회 30만원, 덕형리그 30만원, K-청마회 50만원, KN1942야구단 10만원, 총동창회 50만원



선수들이 경기 시작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 종료 후 만찬

덕경회 명사초청강연회 개최



명사로 초청된 최태열(28회) 동문이 강연을 하고 있다.

동문 기업인 모임인 덕경회는 6월 26일 오후 6시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2023년도 3차 정기모임 및 1차 명사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초청 명사는 최태열(28회) 노무사다. 최 동문은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비대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사문제해법이 기업가들의 건전한 활력을 꺾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의 합리적인 신(新)자유화를 위해 노동관련법의 개정에 기업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부평동 삼세관(56회 오민일 동문 운영)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노사문제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 : 박종찬(25회) 최태열(28회) 이종휘 예동해(이상 32회) 이동근(33회) 백운창(34회) 양호진 이창(이상 36회) 백기현(39회) 김춘강 임태영(이상 40회) 김영철 윤종진(이상 41회) 강병규(43회)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조태성(이상 45회) 이재광(46회) 정신(47회) 김민철(52회) 김문건(53회) 이재필 조종완(이상 54회) 김성수(59회)

용마산악회 고성 적석산 정기산행

용마산악회(회장 서석권·35회)에서는 6월 11일 최고참 13회 윤기갑 선배님과 막내 47회 이승택 동문까지 총 72명의 동문과 동문가족들이 참여하여 경남 마산 고성군에 위치한 적석산(積石山-497m)으로 2023년 제2차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이날 오전 9시 부산진역에서 가벼운 장마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출발하여 10시 30분 비가 그친 가운데 성구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산행 전 행사진행에서 이종민(41회)사무국장은 현 집행부 소개를 하고 서석권(35회)용마산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사참석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전산행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문상현(41회)산행대장은 먼저 산행코스(A, B조) 및 유의사항을 설명과 함께 산행진행을 도와줄 동문들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단체 기념촬영 후 각 기수별 기념촬영을 마치고 오전 10시 50분부터 산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산행은 선배님과 동문가족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사전에 A(45km-3시간 소요), B(66km-4시간 소요) 2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A조-



참가자들이 등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명 / 나머지 B조) 산행 전 가볍게 내린 비로 인해 산행 시작에서 전망바위 쉽터까지 더위와 습한 날씨속에 약간 힘든 운행을 하였으나 오후 12시 30분 국수봉(475m) 직전 안부에 도착 기수별로 모여 정담을 주고 받으면서 식사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충전하였다.

오후 1시 5분 다시 운행을 재개해서 국수봉과 돌탑을 거쳐 30여 분만에 바위를 쌓아놓은 형상의 정상에 올라 먼저 도착한 동문들과 함께 인증샷을 나누며 먼저 보내고 사방이 탁트인

정상에서 땀을 씻으며 마산만과 고성을 지나서 통영 앞바다의 풍광을 감상하며 조금 있으니 선배님 몇 분과 후미조가 도착한다.

여기에서 정상인증사진을 찍어주고 땀 흘린 선배님들께 얼음물을 권해드리니 사탕과 초코렛 등 간식을 주셔서 이종민 국장과 오랫동안 참석한 1일 후미대장 유상일(51회)군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보너스 휴식시간을 즐겼다.

후미조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선배님들을 앞세워 다시 출발.

정상 구름다리와 통천문을 거쳐 일

암저수지를 지나서 산행 원점 주차장에 오후 3시 30분 도착하여 산행을 마쳤다.

산행을 마치고 언제나처럼 목욕탕에 들러 산행의 땀을 말끔히 씻고 다시 차량으로 이동 오후 4시 50분 식당에 도착하여 산행으로 소모한 체력을 불고기전골로 연회와 식사를 함께하며 정담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서석권 회장은 이번 산행 공식행사를 마치고 부산에 도착해서 참석가능한 동문들의 2차 회식비 전액을 사비로 찬조하였다.



참가자들이 법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불회 7월 정기 가족법회

경남중고동문불자회(약칭, 경불회(慶佛會))는 7월 15일 오후 5시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하영수(17회) 동문 외 20명의 동문 가족과 지인들이 참여하여 정기 가족법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마로 인해 습하고 더운 날씨 관계로 참석률이 다소 낮았다. 정토회 유수(儒首)스님을 법사로 모셔서 법문을 청하여 듣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스님께서 답하는 "즉문즉답"형식으로 설법이 진행되었다.

법문이 끝난 후 서정환(28회) 사무국장은 참석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9월 사찰순례 행사를 올해에는 해외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세부 진행사항은 추후 공지하기로 하였다.

법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회관1층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저녁공양을 하며 법회행사를 여법하게 마쳤다.

◇참석자 : 하영수(17회) 정영천 부부, 정상인 부부, 이성집(이상 21회) 정영환(24회) 서정환(28회) 부부, 김법영 부부, 정영학 부부, 이윤조(이상 33회), 서석권(35회) 부부, 황태윤(37회) 윤원욱(39회) 안광근(41회) 금강수선회 조영희, 오화란

용건회 정기모임

용건회는 6월 9일 남포동 '홍유단'에서 2023년 신입 집행부가 진행한 첫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용건회 정현상 회장(32회)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상호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원들의 화합과 건승을 기원하였다.

참석자 중 최고참 기수인 오경석(20회) 고문이 격려사를 통해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화이팅하라"며 후배들을 응원하였다.

2023년 행사와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신입회원인 송유석(38회) 배동석(46회) 김광호(53회) 남승태(54

회) 회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이규봉(23회) 고문과 강평민(58회) 회원이 회원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건배제의가 있었다.

◇참석자 : 오경석(20회) 이규봉(23회) 박성철 이병훈 장기호 정현상(이상 32회) 최용남(33회) 김중근 박철웅 오주흔(이상 34회) 김삼남 송유석 오희진 이종일(이상 38회) 강훈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이양걸 전삼록 한창희(이상 41회) 장일천(42회) 박형규(43회) 조청래(45회) 배동석(46회) 이충현(49회) 김광호(53회) 남승태(54회) 강평민(58회) 전명재(67회) (내빈) 예동해(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용건회 회원들이 모임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마코러스, 고교동문연합합창제 출연



용마코러스 단원들이 합창제 공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 포스터

용마코러스는 6월 18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고교동문연합합창제에 ‘병사들의 합창’ ‘시간에 기대어’란 곡으로 출연했다.

고교동문연합합창제는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부산 시내 남녀고교동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2년마다 모여 개최하는 합창제다.

각 학교 합창단은 각자 모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기연주회, 각종 발표회, 합창제 등 크고 작은 행사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1회는 경남고, 제2회는 경남여고, 제3회는 동래여고가 주관하였고,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다

가 제4회째인 올해 부산여고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합창제에는 경남고의 ‘용마코러스’ 부산여고의 ‘동백합창단’ 경남여고의 ‘수정합창단’ 금성고의 ‘금성하모니’ 남성여고의 ‘크로바합창단’ 동래여고의 ‘옥샘합창단’이 참여하였다.

참가팀 연합 합창곡으로 ‘언덕위의 집’ ‘이별’ ‘젊은 그대’가 발표되어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자 : △내빈 -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부부, 예동해(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부부, 최점수(21회) 동문 부부

△ 용마코러스 - 지휘 조성빈(47회), 반주 박소

미, 테너 1 안승진(39회) 노재훈(50회) 성민기(60회), 테너 2 김용석(28회) 김원철(38회) 박근태(39회) 문형준 안병규 최현덕(이상 44회) 조용수(52회) 장지훈(55회) 김현윤(58회), 베이스 1 정용식(31회) 손수범 전상건(이상 35회) 심재민(38회) 노성수(39회) 김동원(41회) 신봉준(42회), 베이스 2 노덕현(19회) 김병기(39회) 지창근(40회) 김황(44회) 김석훈(50회) 석동호(56회)

- 단원 수시모집합니다.
- 연락처 신봉준 사무국장 : 010-9231-1251

용마코러스(재경)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합창을 하고 있는 용마코러스 단원들

국적, 성별, 나이, 인종을 뛰어넘어 합창으로 전 세계인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개최된 강릉세계합창대회에 (재경)용마코러스가 출전하여 남성합창 오픈 경연부분(Category O12-Male Choirs)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강릉세계합창대회는 한국에서 20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전세계 34개국에서 324개팀 8,000여 명이 참가하여 11일간 개·폐막식, 경연, 세계합창총회, 워크숍, 거리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되었다.

경연은 프로팀인 챔피언경연과 아마추어팀이 출전하는 오픈경연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는데, 용마코러스는 오픈경연의 남성합창부분에 ‘바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순도르마’ ‘하얀수수건’이란 곡으로 참가하였다.

용마코러스는 수상소감으로 남성합창단의 중후한 화음과 ‘네순도르마’곡에서 강렬하게 밀어붙이는 젊고 활기찬 스피노테너(tenore spinto)의 목소리가 청중과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등대회 골프분과 라운딩

6월 20일 더골프CC에서 등대회 골프분과 라운딩을 다녀왔다.

덥지도 않고 살짝 흐린 날씨에 기분 좋게 라운딩을 시작, 18홀 내내 카트에서 웃음소리가 하하호호 넘쳐났다.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라운딩을 마친 뒤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오문세(35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상식을 하였다.

정하운(47회) 동문이 77타로 메달

리스트에 올랐고, 장시호(43회) 동문이 신페리오 우승을 차지했으며, 신동준(47회) 동문이 버디 4개를 기록해 버디상을, 게스트로 참석한 박순건 씨가 드라이브 260M를 기록해 롱기스트상을 수상하였다.

◇참석자 : 노경보(33회) 오문세 이원우 채인석(이상 35회) 박이현(38회) 김현오(42회) 장시호(43회) 신동준 정하운(이상 47회) 정준섭(54회) 김춘술(게스트) 박순건(게스트)



참가자들이 라운딩을 시작하기 직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기회 및 동호회

일육산악회 = 정기산행



일육산악회는 6월 4일 태종대입구~태종대전망대(일명: 자살바위)~태종사~황칠나무숲길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남향동 포항제일물회집에서 오찬 후 영도다리를 걸어서 건넌 후 해산하였다. 6월 18일에는 김해수로왕릉~김해구지봉~국립김해박물관~연지공원을 걷고 삼일식당에서 오찬 후 해산하였다.

◇참석자 : (6월 4일) 강종국 권명석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 부부 손송방 안국정 부부 이겸일 부부 정신극 정우광 최정일 황규정 (6월 18일) 강양수 강종국 권명석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 부부 안국정 부부 이겸일 부부 이맹립 정우광 부부 최정일 황규정

18회 동기회 = 바둑대회



해마다 열리는 18회동기회 바둑대회가 6월 19일 오후 2시 서면 동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축제형태의 행사라 선수들보다 참관자가 몇배나 많은 대회였다. 참가선수가 줄어 4시경에 끝난 대회에서 우승 김태균, 준우승 손천익, 3위 강덕용에 대한 간단한 시상(상품권)식을 하였고, 6시경 회관 인근 소소횃집 2층으로 옮겨 동기들만의 저녁회식이 있었다.

◇참석자 : 강덕용 김기성 김길제 김명조 김병수 김사권 김성수 김용기 김태균 김홍국 노성현 박건태 박동오 박수원 박순정 박종순 서부원 서차수 손천익 송유봉 오수명 이제일 정정돈 진상영 천두갑 최희영 하영일 하진봉 홍광희

◇찬조 : 김길제 100만원, 박동오 서부원 천두갑 각 20만원, 김사권 박수원 박종순 정정돈 각 10만원

19회 동기회 = 정기총회



19회 동기회는 6월 20일 자갈치 명물횃집에서 2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장희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회 동기회 = 정기 월례회 개최



20회 동기회(회장 윤병규)는 7월 21일 서면 대야성갈비 식당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지루한 장마 끝에 모처럼 화창한 날씨 덕인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모인 27명의 동기들은 서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 : 강석근 강영환 김대원 김세준 김조동 김태선 남경열 노기태 류영덕 박기상 박병관 박병천 박장대 박재인 배서호 손상수 신현석 우철성 윤병규 이종열 장병호 장상배 장춘식 정승창 최장하 표문배 허남균

20회 동기회 = 홋카이도 여행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3박 4일간 백두산악회 주관 홋카이도 단체여행에 동기들 18명이 참가하였다.

신치토세국제공항으로 날아가서 홋카이도의 다이세쓰산(大雪山) 연봉 아랫마을 비에이(美瑛)를 비롯한 아름다운 마을과 신기한 활화산의 현장인 도야호-우스산 세계지질공원과 쇼와신산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행에 동기 부인 3명이 동행하였다.

23회 동기회 = 7월 모임



7월 24일 자갈치 신동아회센터 3층 하동집에서 7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권철현 김기룡 김기열 김동욱 김상영 김상호 김현구 도명세 문주열 박무열 박수갑 박영창 박재호 송사공 신상희 안호창 오윤안 이상운 이용원 정동일 정연철 정용호 정택만 조윤중 최대일 한영철 허용수 홍덕표

24회 동기회 = 6월 모임



24회 동기회는 6월 17일 총동창회 주최 한마음가족대축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6월 월례회 모임을 대체하였다.

◇참석자 : 강종문 곽두희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손세영 안명수 오성환(이경애) 이현우 임덕철 조영태 주점권 최동우 최창림 황성훈

24회 산우애 = 6월 정기산행(제249차)



6월 3일 자갈치역 ~ 6번 버스 탑승 ~ 등대시장 정류소 하차 ~ 남향등대 방과제(남향체육공원) ~ 송도 365구름다리 ~ 송림공원 ~ 해상케이블카 탑승 ~ 암남공원 용궁 구름다리 ~ 암남공원 ~ 서울집 코스로 6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태창업 고문의 안내로 안전한 산행을 하였다. ◇참석자 : 김성득 김인구 김인철 손세영 유홍석 장수현 조재진 최승국 태창업 황성동

24회 산우애 = 7월 정기산행(제250차)



동기회 및 동호회

<기사 17면에 이어>

7월 1일 구서역 ~ 예가아파트 ~ 금천선원 ~ 외대 운동장 ~ 상마마을 ~ 성보박물관 ~ 경주집 코스로 7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최동우 동기회장의 사전 답사 및 안내로 안전한 산행을 하였다.

◇참석자:곽두희 김도현 김인구 김인철 안태인 안형수 장수현 조재진 최동우 최승국 태창업 황성동

24회 이사빌 = 6월 정기모임



6월 19일 플라틴 당구카페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결과 - 우승:정기춘, 준우승:김명배

◇참석자: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이재능 임덕철 정기춘 주점권 태창업 황성훈

24회 이사빌 = 7월 정기모임



7월 19일 수영 힐링당구카페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결과 - 우승:한승철, 준우승:박인호

◇참석자:김경남 김명배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박인호 배재일 임덕철 정기춘 정연우 최승국 태창업 한승철

24회 후라회 = 7월 모임 개최



7월 10일 성문식당에서 7월 모임을 개최했다.

11월 11일 24회 후라 경부전 개최예정이며 세부 사항 확정시 추후 공지하기로 하였다.

◇참석자:강동우 강종문 김경남 김도현 김명배 김인구 김인철 임민호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태창업 황성동

25회 동기회 = 6월 월례회 개최



25회 동기회는 6월 23일 서면 대양성갈비에서 6월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11월 가을소풍 장소는 일본 후쿠오카로, 모든경비는 개별회비 없이 찬조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석자:강용주 김규진 김길수 김동진 김옥권 김용수 김종국 김종현 김진우 노태호 박광용 박종찬 박진상 배동명 서병수 서보민 안희석 여성조 옥동훈 윤태석 이상식 이상훈 이신화 이태근 장세훈 최재환 최차환 하동문

25회 골프회 = 7월 모임



7월 4일 정산CC에서 25회 골프회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김규진 김종국 박광용 박진국 안영복 안희석 오양득 장세훈

25회 신우회 = 6월 정기모임



6월 19일 남천동 수변시장에 있는 형제 초장식당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김덕우 김상수 배동명 안용운 예해덕 전섭태 정윤철 조경일 최현림1 최현림2 한헌교

25회 산우회 = 7월 정기산행

25회 산우회는 7월 9일 산성마을중점~암문~



사시로~미륵사~장대~산성중점 코스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김구화 노태호 박문갑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근태

25회 당구회 = 7월 정기모임

7월 7일 서면 나이스당구장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김규진 김옥권 김종현 박광용 박진상 옥동훈 이상영 이신화 이인구 전상태 최병주 최차환

26회 동기회 = 6월 대동제



6월 4일 26회 동기회는 2019년 함양을 다녀온 뒤 4년만에 모임을 가졌다.

직지사, 직지 문화공원, 사명대사 공원을 둘러보았다.

◇참석자:(부산-싱글) 강수남 김지승 김택영 김형 박용석 박철홍 신형진 윤흥석 이광태 조만석 최의수 황광수 (부산-부부) 강태중 박만식 박재창 왕정일 이상원 이영학 정익교 최수일 (창원,상주) 김일광 김정욱 김호용 이희준 한원우 (서울-싱글) 강용수 권종욱 김동언 김영수 김우성 김일상 김재수 김현용 박문구 방흥기 손욱호 이종화 정수진 정재영 정한경 홍청곤 (서울-부부) 구영호 김기표 김정원 노경빈 박오옥 서헌수 이승무 장원표 현동우

33연우회 = 235차 정기산행



<기사 19면에 계속>

<기사 18면에 이어>

33연우회(회장 진태호)는 울산 대나무십리길 산행후 단합대회를 가지며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계동원 김철 서재영 여민상 윤석근 이호인 조문규 진태호

35회 동기회 = 전국당구대회



35회 전국당구대회가 6월 10일 남포동 다빈치클럽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선수로 참가하는 재경 부산 울산 동기들 뿐만 아니라 응원조로 참여한 동기들도 많아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에 진행되었다.

당구라는 스포츠예술을 통해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당구알처럼 우정도 둥글둥글하게 무르익어갔던 하루였다.

◇참석자:강남길 강현욱 권기범 권인근 김동일 김인수 남기균 류인수 류철인 문영선 문흥근 박정진 박창석 배중환 백현성 변상돈 손경호 손태섭 안병남 오문세 윤평관 이창렬 이창성 임상규 임현진 전성률 전해진 정명섭 정성운 정윤성 정한습 조신제 조영제 채인석 최민석 한만두 홍규삼 홍성표

울산 35회 동기회 = 6월모임



6월 29일 완도참전복에서 6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6월 모임을 가졌다. 이날 9월 1일~9월 2일 1박 2일로 늦은 환갑여행을 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석자:강창호 남권효 박희찬 유철인 이호성 전상건

35회 동기회 = 3학년 9반 반창회



35회 3학년 9반 동기들이 모여 7월 22일~23일

36회 동기회 KN36GOLF 하계원정

36회 골프동호회 KN36GOLF는 7월 8일 1박 2일 일정으로 골프존카운티 무주 라운딩을 다녀왔다.

오전 8시 30분 연산동 법원주차장에 모여 28인 승버스 1대로 14명이 출발하였고 서울에서 김용진 동기가,베트남에서 이한호 동기가 참석하였다.

전날까지 부산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무주는 구름만 조금 낀 날씨였다. 골프장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티업을 하였으며 티업을 마친 후에는 버스로 30분쯤 이동하여 무주 나뭇리조트에 여장을 풀었다. 숙소 근처 '미담'이라는 제주오겹살 맛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당일 기록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핸디를 적용하는 룰에 따라 메달리스트에 80타를 친 김병주 동기(핸디 89타)가 차지하였고 2위에는 84타를 친 최재혁 동기(핸디 90타)가 3위는 92타를 친 정병기 동기(핸디 97타)가 차지하였으나 시상은 순위에 따라 고르기를 하여 참석한 동기 16명 전원에게 주어졌다.

다음 날 아침에 치러진 2차전에서도 김병주 동기가 78타, 최재혁 동기가 82타로 1, 2위를 차지하였다. 전날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시고도 좋



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맘 편한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상준 동기가 부산에서 준비해간 해장시락국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참석자:곽상호 김광수 김도균 김병주 김수용 김용진 김종백 안재익 윤경준 이상준 이한호 전현우 정병기 최재혁 홍의창 황상철

◇찬조:황상철 1일 중식대 22만원, 안재익 1일 석식대 110만원, 김병주 2차노래방 50만원 +10만원, 김수용 100만원(리무진버스), 정병기 50만원, 최재혁 30만원+꼬냑 2병, 김광수 7만원, 홍의창 50만원+유기농마스크팩 15박스, 윤경준 최고급 마스크팩 15박스(75만원 상당), 김도균 고주과마사지기 1대

경남고 학창시절 고3 담임선생님이셨던 김의교는 사님을 찾아뵈었다.

선생님께서 고향인 구미에 살고계셔서 재경동기들과 부산, 경남동기들이 구미에서 만나 은사님을 모시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돌아왔다.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건강하신 선생님 모습에 모두들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학창시절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추억의 한페이지를 가슴에 담고 돌아왔다.

모두들 은사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였다

◇참석자:김태영 류인수 박동열 박병배 안병남 유용호 이영오 전성률 정성운 정인철 정충길 최석용 홍성표

39회 동기회 = 7월 모임



7월 26일 서면 급행장 차이나 2층에서 39회 동기모임을 가졌다. 김규웅 동기회장과 전임 동기회장 전원이 참석하고 멀리 삼천포에서 응급실 월차를 내고 참석해준 김영부 동기, 서울에서 객지(?) 생활 중인 이창화 동기, 대전에서 KTX를 타고 참석한 박종국 동기까지 모여 더 뜻깊은 모임이었다.

41동기회 골프회 = 4차 모임



7월 8일 장마의 한가운데, 아침까지 세차게 내린 폭우가 가라 앉은 틈을 타고 정산CC에서 2조 8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하여 이슬비와 짙은 안개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라운딩이 이어졌다. 라운딩이 끝난 후에는 원지농원에서 오리구이와 오리탕으로 원기를 회복했다.

메달리스트에 최영준, 신페리오 우승에 강병오, 니어는 5미터로 붙힌 백선민, 신페리오 2위와 룡기는 박정호 동기가 중복수상 하였다.

경품으로 준비된 갤러시 버즈 추첨의 행운을 차지한 박정호 동기가 앞에서 받은 시상은 양보하여 추첨을 통해 강훈, 전삼록 동기에게 시상되었다.

◇참석자:(전투조) 강훈 박정호 전삼록 최영준 (친목조) 강병오 백선민 성찬기 이정삼

◇찬조:김영철 동기회장, 최영준 골프회 회장 각 20만원, 강병오 김정태 서상대 이정삼 각 10만원, 강훈 갤러시 버즈

42회 동기회 = 6월 정기모임

6월 9일 중앙동 삼락정식당에서 곽창우 동기회 <기사 20면에 계속>

동기회 및 동호회

<기사 19면에 이어>



장 외 16명의 동기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곽 회장은 참석해준 동기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35주년에도 많은 친구들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박동식 동기고문이 35주년 준비사항을, 안정일 재무국장이 회비납부 현황을 보고했다.

고장석 산악대장의 산행 보고 뒤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차는 인근 호프집에서 곽 회장과 강인호 수석부회장이 계산하였고 몇몇 친구들은 3차까지 이어갔다.

43회 동기회 = 6월 정기모임



온세상이 푸르게 열리는 6월 여름을 맞아 6월 17일 당리동 삼구 한우암소짜갈비에서 43회 친구들도 모처럼 열린 마음으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진배 회장의 상반기 행사보고 및 하반기 행사 안내가 있었고 2차 노래방에서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음주가무를 즐겼다.

◇참석자: 강상훈 김대영 김대훈 김동헌 김수민 김영재 박상순 박승삼 서원택 심문섭 윤성진 이석민 이정렬 이진배 이학노 전세준 정효범 최동환 최영동

◇찬조: 강상훈 10만원, 김대영 김대훈 이정렬 각 20만원, 정효범 10만원(3차 오텍바 계산)

44회 동기회 = 7월 정기모임



7월 28일 부평동 야우보쌈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윤상훈 동기회장은 동기와 가족들의 여름 건강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언급하였고, 동기들의 동창회보비 납부를 독려했으며, 44회 동기회 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학회 관련하여 올해까지 동기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세부방안을 정하기로

하였다. 9월 모임을 추석명절로 인하여 9월 22일로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1차는 참석자 회비 및 석상봉 동기 찬조금(10만원)으로, 2차는 별교꼬막에서 진행하였고 식대 36만원 상당은 안병규 동기가, 3차는 독도새우에서 진행하였는데 식대 30만원 상당은 윤상훈 동기회장이 전액 부담해 주었다.

윤상훈 동기회장은 이날 기념타올 및 국수세트도 기념품으로 찬조하였다.

◇참석자: 김성준 안병규 우도균 윤상훈 이부교 이승철 임정훈 전광열 정도영 조영호 조진현 조철현 최현덕 한수성

45회 동기회 = 7월 정기모임



7월 21일 주례 돌쇠 깎두기(박진환 동기 운영)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강민수 구자삼 김병한 김상수 김상우 김정환 김종현 박준오 박진수 박진환 신상호 신태호 이동희 임석범 정행덕 조청래 조태성 최지우 황귀웅

46회 동기회 = 6월 정기모임

46회 동기들은 6월 30일 장마철의 궂은 날씨에



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부평시장 삼세관(56회 오민일 동문 운영)으로 모여 들었다.

북적거리는 가게에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가운데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30주년 후로 동기회에 처음 나와준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어서 반가움을 더했다.

마침, 옆자리에서 반창회를 하고 있던 40회 한수열, 김춘강 등 선배들로부터 찬조금 2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어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날 모임은 3차로까지 이어졌는데, 1차 회식비 70만원 중 찬조금 20만원을 뺀 50만원을 최원석 직전 회장이 전액 부담해 주었고, 2차 식대 20만원 상당을 정병노 동기가, 3차 식비 20만원 상당을 윤성곤 동기가 전액 부담해 주어 나머지 동기들에게는 연속으로 터지는 찬조로 참가회비없는 흐뭇하고 훈훈하기가 그지없는 모임이었다.

◇참석자: 강남구 권용진 김경수 김규태 김희택 배주영 서승진 송영주 신정일 오동기 오영훈 유영탁 윤성곤 이재광 정병노 정수찬 최원석 하성용

56회 동기회 = 정기총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56회 동기회는 6월 17일 제2회 정기총회를 한마음체육대회를 겸해서 진행하여 동기 가족들 얼굴도 익힐 겸 함께 구성했다.

총동창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편한 마음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었다.

류은재(개명전 이름 류재원)경남고 코치도 시합전 잠시 참석했다.

김영준 부회장이 수박과 어린이 다과를 준비하고 찬조도 하였다.

25회 박종찬 고문께서 행사에 참석한 동기회 모든 자녀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장기자랑 시간에 동기회장 장재환 자녀, 부회장 이준희 자녀 팀이 참가하였고 이준희 자녀팀이 장기자랑 수상을 하였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김채은 동기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백년오리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김채은

동기가 주류를 찬조했다.

장재환 동기회장이 찬조한 구글 기프트카드 12장과 와인 4병 추첨이 있었는데, 한마음체육대회 추첨 때 상품을 받지 못해 눈물까지 흘린 임윤섭 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추첨이 있었다.

이날 모임은 3차까지 이어졌는데 3차비용은 현 부회장이자 차기 회장 후보인 강지훈 동기가 찬조했다.

◇참석자: 강동현 외 1명(배우자) 강지훈 외 4명(부모님 2명, 조카 2명) 강호성 외 2명(배우자, 자녀) 김영준 외 1명(자녀) 김정훈 외 2명(배우자, 자녀) 김채은 외 3명(배우자, 자녀) 남성현 외 1명(자녀) 남용수의 3명(배우자, 자녀) 박재우 류은재 손정현 외 3명(배우자, 자녀) 오민일의 1명(배우자) 윤진혁 외 2명(배우자, 자녀) 이승민의 1명 이준희 외 3명(배우자, 자녀) 임동섭 임윤섭 외 3명(배우자, 자녀) 장재환 외 3명(자녀) 천두만

LA거주 박병철(20회) 동문 태평양 건너 온 모교사랑



박사학위 수여식 후 가족 및 지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A거주 박병철(20회·사진) 동문이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4월 3일 귀국하였다가 부산을 방문 총동창

주 동문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세계 한인무역협회(WORLD-OKTA)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성장과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

회에 모교사랑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박 동문은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미국 이민 1세대로 같은 대학 남가

선 공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박 동문은 벼룩시장에서 가방판매를 시작하여 허리에 매는 ‘패닉 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에베레스트’란 브랜드의 가방 하나로 전세계 정복한 한상(韓商)으로 유명하다.

박 동문은 자신의 성공비결을 ‘자신을 이겨내는 마음과 노력’,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정직’, 가장 빠른 지름길로 ‘원칙지키기’ 등을 강조했다.

역경은 이겨내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후배들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주기를 바란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모교사랑기금을 기탁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박 동문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방문하여 적지 않은 기금까지 기탁해 준 것에 대하여 전동문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했으며, 당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일정에는 강부덕(20회) 신동훈(38회) 동문이 늦은 시간까지 합석하였다.



총동창회관건물과 윤상준(15회) 동문

총동창회관건물이 40년 전 건축사인 윤상준(15회) 동문에 의해 최초 설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윤 동문에 의하면 건축주였던 16회동문의 부탁으로 건물을 설계하였으며 그 후 4차례 리모델링 설계변경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최초 설계와 큰 변화는 없는 상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총동창회관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그 감회가 남달랐다고 하는데 현재도 최초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이 가장 큰 변화

라고 하였다.

윤 동문은 현재 은퇴하여 취미로 짬짬이 펜화(사진)를 그리고 있는데 보통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하루 2시간씩 10일 정도 작업을 해야 1개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윤 동문은 7월 4일 오전 80년사 편찬위원인 김기열(23회) 동문의 안내로 동창회관을 방문하여 동창회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예동해(32회) 사무총장이 윤 동문을 영접하였으며 기금기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동문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펜화 경주 불국사



펜화 설경의 불국사



펜화 범어사 일주문



펜화 주왕산 계곡 무지개다리

서부원(18회) = 신라대 평생교육원 색소폰경연대회 최우수상



18회 동기회에 기여도가 높고 직전동기회장을 지낸 서부원 동문이 평소 취미생활로 익힌 색소폰 연주솜씨로 6월 6일 신라대평생교육원에서 개최한 색소폰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는 동기회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자선단체 행사에도 부지런히 재능기부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재성(35회) = 2023 부산중소기업인대회 국무총리상



김재성(35회·해성공업 대표) 동문이 6월 16일 개최된 2023 부산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김 동문은 선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국산 잠수함 최대 규모인 3,000톤급 ‘장보고3’ 국산화에 기여하는 등 다년간 조선(造船)부분 국가R&D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한 실적과 최근에는 울산에 2,7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여 4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본사는 강서구 화전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사가 창업된 지 50년을 넘기고 있다고 한다.

최재혁(36회) =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지회장 취임



최재혁(36회·케이트레비 대표) 동문이 6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지회장에 취임하였고, 7월 7일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내외귀빈과 회원들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지회는 사하구 16개동에 8,8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다.

정도영(44회) = 행정안전부장관상



정도영(44회) 동문이 국회입법조사처, 부산시청, 경기도 경제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6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 동문은 2010년 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되었으며 2022년 말 경기도 경제기획관을 끝으로 퇴직하였다.

정 동문은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효자(孝子)상을 수상할 만큼 평소 어른들을 잘 섬기는 예의바른 인물로 주변에 정평이 나 있다. 현재 ‘생활경제연구소’를 설립해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2,047명 2023. 7. 27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83-2419-08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이종휘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 (회보구독료)

- 3회 이안규 2024년
- 5회 진도영 2024년
- 7회 윤용우 2024년
- 11회 김광석 2024년, 이균우 이세영 2025년
- 12회 김진갑 2024년
- 13회 박홍표 2025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 14회 박남조 2026년, 이효근 최성웅 2024년
- 15회 김쌍열 2024년, 손부흥 2031년, 윤상준

- 2025년, 임영길 2032년
- 16회 박종봉 2024년
- 17회 이수창 2027년, 장호남 2024년, 정병렬 2025년
- 18회 박상욱 홍우재 2024년
- 20회 문시영 2024년, 최장하 2025년
- 22회 이상협 2026년
- 23회 박재호 2028년
- 25회 박명우 2024년, 임창운 2051년
- 26회 민창현 2024년, 이상원 2030년
- 27회 박치호 장인철 2024년
- 28회 구영소 김부윤 박종기 2024년, 하재근

- 2028년
- 30회 강석철 2030년, 박철우 2027년, 신교선 2025년
- 32회 최준호 2025년
- 33회 최용남 2030년
- 34회 정하태 2025년
- 36회 김관용 2026년 김용진B 2026년, 양호진 이창 2024년
- 37회 서동욱 2024년, 이수환 전인수 최기영 2025년, 허부남 2026년
- 38회 권두성 2029년, 김언규 김원철 2024년
- 40회 박훈재 2025년

- 41회 최영준 2032년
- 43회 김대영 2024년, 최용석 2025년
- 46회 권성기 2024년
- 47회 배준수 2027년
- 50회 박종현 2028년
- 51회 반길호 2032년,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 54회 엄도용 2024년
- 55회 박두근 박신현 최익제 2024년

- 3회(3명) 송두호 윤태윤 이안규
- 4회(4명) 김희수 양종학 장수호 정순모
- 5회(5명) 김진휴 상기중 이문기 정인조 진도영
- 6회(9명) 강동숙 김종철 변영수 손용수 이희문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 7회(13명)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진홍 김태배 배중현 송익득 오정은 윤용우 임성규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 8회(12명) 김봉길 김상식 문창화 박재범 엄덕량 이종택 이춘기 이호수 장혁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 9회(10명) 김경희 김기관 김태영 박영복 서해량 안규현 윤일명 전인규 정 록 정해돈

- 10회(24명) 강희윤 김상규 김선동 김정학 박경수 박철민 배길순 신규태 심영환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기상 전연대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최병도 하영수

- 11회(42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옥실 김용만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인호 김태호 김학수 김형곤 문정오 박관호 박성우 박창순 백규덕 서영호 서자윤 심재용 양수택 오정광 유홍수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훈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은표 제정오 천근준 최동영 최성욱

- 12회(53명) 강보순 강창수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근 김봉화 김부생 김부환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종일 김지희 김진갑 문준화 박문기 박성DA 박영운 박정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안상직 안영배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원우 이현달 임상원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호중 조정재 조홍래 차민도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 13회(65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김동호 김부조 김상치 김신부 김영호 김정균 김정일 김치득 김한규 남영기 문 창 박민보 박안남 박종탁 박홍표 배대걸 배정은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상문 이종달 이준범 이상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랑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종현 제병민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 14회(49명) 강주신 권 명 김덕형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두남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종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종철 배중현 손영목 송성달 신기석

-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명재 이수남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조광명 조규향 조정현 최낙섭 최성웅 최총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준성

- 15회(50명)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옥규 김완식 김종태 김종한 김종광 김중식 김필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효가 배성훈 손부흥 신용기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유휘정 이상호 이의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희 임영길 장봉고 장종호 정석우 천신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철 한해수 허경도 허중덕 홍익찬 황중부

- 16회(57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웅 김두웅 김박일 김상효 김양원 김윤진 김정호 김 조 김종덕 김종길 노원소 문성환 민시영 박기용 박두영 박용일 박종봉 방수근 박정희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승방 송규정 송자문 엄종원 영광해 오형철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무근 이방소 이양근 이종철 이창원 임승언 정우광 정일성 조길우 조원재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한일랑 황규호

- 17회(48명) 감정은 김길우 김동수 김용구 김용남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박인사 박재구 권경술 김상천 남공성은 박가식 박인도 박 찬 박홍식 서정호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성아 신홍규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중환 윤성욱 윤수성 이근우 이세복 이수창 이형우 장길성 장웅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최성호 하영수 허진행

- 18회(60명) 강대원 강덕용 강영호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귀언 김기섭 김사권 김성건 김용기 김재창 김종철 김지호 김홍대 류종우 박근태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선동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종문 박준성 배세원 서재봉 서종규 실현기 손무열 손찬규 우원호 윤봉수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기용 조성재 천두갑 최 인 최재범 최진수 하영일 한기대 한기철 허만조 허성태 허영도 홍우재 황광근

- 19회(67명) 강동완 강영범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운 김성진 김순호 김영탁 김영태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규 김철호 김행복 노덕현 노태규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서승성 성낙출 성환진 손기태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안정모 유문환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상환 이용조 이용흠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홍 이준만 임우근 임재원 장승규 장홍수 최규대 한영섭 함진복 허남걸 황태원

- 20회(41명) 강석근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영철 김일식 김종민 김한원 김형우 김희식 남경열 남기석 문성태 문시영 박용덕 박지오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영오 이종영 임세호 장춘식 전일준 정승창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한

- 21회(70명) 강민우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분능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동우 김부근 김상덕 김영삼 김유건 김현태 마상준 박명문 박영욱 박상기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성정근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오태규 육화원 윤승근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주성 이 희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영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종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한대윤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 22회(65명) 강호일 고인준 광대홍 구자룡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성재 김상태 김세곤 김수열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곤 김철현 김학균 남백우 노평호 박규모 박승목 박재구 박재상 박창섭 박홍조 배병한 배춘식 변종호 서경덕 손연모 손용섭 심재복 안영수 오세길 유명윤 유인조 유재진 윤동원 이경상 이민성 이상현 이운규 이윤제 이춘식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화봉 하성일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 23회(61명) 김인홍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익곤 김정록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박기홍 박수갑 박재호 배종소 배준석 배승찬 박창영 서승환 손근식 송영춘 신경재 신연근 안범두 안병울 오도준 유휘형 윤길원 윤병조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덕남 이병찬 이상수 이수백 이승호 이영재 이윤식 이정욱 이준식 이충호 장기원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재홍 정귀술 정동일 정상건 정영호 채행운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 24회(83명) 강동우 강창흠 광두희 구분열 구자용 김경남 김경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윤수 김은호 김인규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휘영 박극제 박윤성 박찬호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덕 성총기 손찬호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상학 이수 이영태 이재능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우영 정명근 정영석 정영호 정윤상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정권 진병건 차동렬 차한영 최동우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최현규 태창업 하재갑 한상렬 허규연 황성동 황성훈

- 25회(102명) 고명식 구도근 김건우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정학 김종국 김종윤 김중현 김진우 김창욱 김창호 김태선 박건수 박경림 박광용 박맹우 박세철 박영하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상 박용기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손국영 신경학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오양득 옥동훈 이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승기 이대우 이동의 이명철 이민희 이상봉 이상화 이신하 이인규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홍성 이영대 임창운 장대락 전선태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차인환 최재환 최차호 최차환 최태동 태명산 한준석 허영형 허 택 황근태 황호선

- 26회(63명) 강수남 강영년 고석훈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성현 김영섭 김일광 김정원 김중원 김용재 김태연 김태년 김 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재 박권범 박동주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손영수 손욱호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정근 이주형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옥 정영륜 정재영 조만석 조일제 최명해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홍정곤 홍형택 황광수

- 27회(50명) 강태영 고창우 광대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중욱 김지언 김진명 김태우 김학희 문두찬 박규욱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병록 배호택 백인호 변재국 서기룡 신현원 오봉인 윤종락 윤지현 이민부 이성도 이요섭 이종영 이종찬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조용수 최인성 태기섭 한상훈 한수길

- 28회(65명)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만종 김명철 김부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김창준 김홍국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호진 백영호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양동욱 옥상근 유봉수 윤정환 윤명일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영희 이원철 이원태 이종만 이홍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광병 전선국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치영 정해영 조광제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허남식 황창두

- 29회(63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석운 김 영 김영훈 김인술 김재현 김정암 김중권 김중명 김철오 박근우 박동일 박동홍 박봉구 박상길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백성욱 변종만 사공윤 서석철 손영보 송경문 신현수 오세용 윤석희 윤 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상용 이승호

요즘 어떻게

<17회>

△김광희 = 모친상. 7월 26일 부산시 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일영 = 부인상. 7월 2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에서 발인

<23회>

△박완수 = 빙모상. 7월 25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6회>

△고경환 = 빙모상. 6월 26일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5호실에서 발인 △이윤봉 = 부친상. 7월 11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에서 발인

<30회>

△서민석 = 빙모상. 7월 16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발인 △윤광식 = 빙모상. 7월 26일 부산시민장

례식장 502호에서 발인 △정해도 = 빙모상. 6월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에서 발인 △황철민 = 모친상. 7월 8일 부산 광혜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발인

<31회>

△김성원 = 빙모상. 6월 5일 합천추모공원 202호실에서 발인 △소순호 = 딸수연양 7월 1일(토) 오후 5시 서울 더 플라자 그랜드볼룸(11층)에서 결혼 △안용모 = 아들 태현군 7월 21일(금) 오후 4시 캐나다 밴쿠버에서 결혼 △원종인 = 모친상. 6월 4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2호실에서 발인 △최주홍 = 모친상. 7월 14일 사하구민 장례식장 301호실에서 발인 △홍성수 = 아들 영석군 6월 25일(일) 낮 12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과

르나스 그랜드볼룸(5F)에서 결혼

<33회>

△유희철 = 6월 1일 해운대 좌동에서 천사당구장 개업 △이상규 = 딸 언주양 7월 1일(토) 오후 3시 연제구 다비다웨딩홀에서 결혼 △임광웅 = 빙모상. 6월 4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4회>

△김상진 = 아들 태환군 6월 17일(토) 오후 3시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홀에서 결혼 △박재찬 = 딸 경희양 7월 1일(토) 오후 2시 30분 포항 UA컨벤션 6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36회>

△최재혁 = 빙부상. 6월 20일 부산전문장례식장 VIP6호실에서 발인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김종팔(10회미국) = 7월 16일 작고
▶ 김재화(10회미국) = 7월 9일 작고
▶ 신용범(10회) = 7월 19일 작고
▶ 진치남(15회) = 6월 9일 작고
▶ 현승부(16회) = 7월 2일 작고
▶ 김영해(23회) = 7월 12일 작고
▶ 노준상(24회) = 6월 5일 작고
▶ 이충식(26회) = 7월 22일 작고
▶ 장상대(26회) = 6월 24일 작고

<42회>

△성창익 = 빙부상. 7월 14일 발인 △유승종 = 모친상. 6월 24일 발인

<45회>

△조성수 = 프라미스요양병원 개업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15 T.041-622-3311)

이승훈 이정윤 이준환 임상흔 장현경 정 길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차익수 최기훈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영열 황맹균 황유명

30회(71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영일
김재일 김진영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문진호 박규완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변윤수 서강태 서민석
신교선 신구균 신윤원 심풍수 양문섭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명진 이병구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욱 이종욱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기룡 정병호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조용업 채영재
최 욱 최진근 최진권 하규양 황철민

31회(66명)

강대식 고영호 공종렬 광종철 권해철 김광수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종규 김종호A 김태근
김판덕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준
박종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동진
서수교 서태호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심중식 안중수 오민일 오용환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이승원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정원규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부영 최상용 최인목
최주홍 최해영 하명수 하학렬 한문성 홍성수

32회(37명)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권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김태홍 류현희 민길식 박성철
박우상 박준구 박진원 백영태 신국선 신명환
신한국 양문섭 예동해 우득현 이관우 이병준
이병훈 이상용 이상훈 이종휘 이환용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전성환 정용운 정의주 최춘호
허 정

33회(47명)

고창성 김기산 김대현 김명환 김범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인 김 철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민병현 박근보
박명진 박성병 박태중 백수현 서재영 송성림
송종현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항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창훈 이형근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용남 최환호 황경원

34회(20명)

곽수균 김태하 노인선 박철용 옥재명 윤성부
이강희 이상운 이용희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태태 조문국 조시형 진양호
최용철 홍승철

35회(22명)

김길호 김우경 김우신 도창호 류인수 박동열
박창석 서석권 성규원 손수범 손태섭 안종엽
안종일 윤종호 이남기 이상환 이춘기 이효성
장인화 정호영 주귀홍 최기평

36회(45명)

공진식 김관용 김규선 김덕주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 김재호 김정현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창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우진 박영준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신용덕 안재익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 창 이현수
임서룡 정갑영 정병기 제갈재환 지동섭 최상도
최재혁 최태섭 한형식

37회(31명)

김동명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의렬 김종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송경철 유호섭 윤태환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기섭 조성각 조현철
차기완 천윤찬 최기영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회(36명)

강금성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언규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박해도
방기대 박승은 박종훈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종현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한민덕

39회(35명)

곽기영 김규용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정남
김종엽 김철술 김형보 김호석 남호찬 노성수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백기현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준영 이태운 장윤혁 정순환
정진해 천용준 하성모 하순호 허종기

40회(24명)

강창지 권귀동 김근영 김춘강 나수민 문형욱
박근성 박훈재 배병훈 서정민 안경진 안성호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 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최치연 한수열

41회(30명)

강병오 강 훈 김동원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김정태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정의 백창봉 성준호 성찬기 안광근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정필상
천성원 최영준 한정호 한창희 허종윤 황정후

42회(18명)

강인호 고장석 광창우 김광철 김동수 김원주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성창욱
신동복 신봉준 안정일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43회(21명)

강병규 강택용 고두병 구명진 김대영 김신현
김종수 김진수 김태형 문기덕 문영찬 박경근
서원택 윤성진 이상현 이상훈 이용상 장병철
전순표 정효범 최용석

44회(18명)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배봉건 안성만
윤상훈 이동렬 이부교 이승철 이창용 임정훈
전광열 조영호 최현덕 탁정환 한수성 황인주

45회(50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용성 김종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태우 김현철
김현호 나성태 박 응 박중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왕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오승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정상희 정일균 정종훈 조재래 조태성 주형기
진상영 차명환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옥

46회(45명)

강남구 강성백 구경민 권성기 권용진 권진근
권태운 김경수 김규태 김대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영수 김철홍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맹기홍 문용성 문정기 박문현 박정석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안명기 양수성 오동기
오영훈 유영택 윤경한 윤성근 이경승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정문호 정병노
최원석 하성용 홍이준

47회(11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영진 배준수
이기문 이승택 정민호 정 신 최경훈

48회(10명)

권유찬 권태현 김정훈 김종철 김주현 김춘호
김종진 김태균 이동재 차원일

49회(5명)

이충현 장민건 정일권 조영철 최진영

50회(5명)

김유진 박종현 서석진 이상준 이승현

51회(16명)

강승호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태 박보순
박성주 반길호 신혁휴 신현식 오성진 유상일
이건영 이 덕 이지모 정유석

52회(22명)

강영철 구순모 김명중 김민수 김상곤 김성화
김지운 김현진 박상현 변의현 유종갑 이경원
이도경 이상은 이신현 정상중 정철우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훈만

53회(10명)

김문건 김삼욱 문희규 박현근 백홍상 송승윤
송승준 전세일 한동인 황종민

54회(6명)

고지현 김승택 신정우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55회(84명)

강경동 강문성 고윤성 권세호 김근주 김대성
김대연 김대진 김동민 김동현 김시정 김정현
김태련 김태현 김팔경 김현달 김현중 김형식
명종호 박기홍 바다엘 박두곤 박범희 박상인
박성호 박신현 박정민 박찬우 백광일 변주환
서부건 서진우 송정환 신동현 신민걸 신용국
안준형 안진영 양세동 윤승환 이태호 이도경
이동규 이동욱 이동주 이동현 이문원 이상윤
이영훈 이욱한 이종원 이해민 이항림 임인철
장 민 장범후 장우권 장지훈 장현준 전대근
전미기 정규진 정교찬 정보영 정승윤 정철규
제갈문 조유호 조재영 조중호 조현민 정성후
최범준 최상국 최성원 최유성 최익제 최지훈
최 훈 하치수 한재호 허 준 황보영 황시우

56회(11명)

강호성 김대남 김성현 김형근 손정현 오신욱
이승민 임동섭 장재환 정경환 천두만

58회(1명)

김현윤

59회(1명)

김성수

60회(1명)

이명희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3명)

권성민 천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6명

2023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3년 7월 27일 현재

Table with columns: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Includes summary rows for 기수&이름불명, 총발송부수, and 목표인원.

MDIS

스마트공장 구축에 최적화된 통합플랫폼

MDIS는 “남보다 앞서가는 IT Solution” 을 추구하는 선두기업을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야에 핵심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융합IT 분야에 전문 솔루션 공급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이 창 (36회)

주식회사 엠디아이에스 (MDIS Co, LTD)

홈페이지 : www.smartmdis.com

TEL : 070-4113-0901

FAX : 070-4249-0905

E-mail : mdis@mdis.co.kr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가길 8
선유도소미골드4차 902호

대구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107

부산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261번길 25, 401호



|주| 엠디아이에스